

#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검증: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based on Goal Orientation Type

김민정, 이희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Min-Jung Kim(helmes23@hanmail.net), Hee-Kyung Lee(ahalee@catholic.ac.kr)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393명을 대상으로 강점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다음으로는 검증된 매개모형이 Dykman의 목표지향성 유형(인정추구지향성, 성장추구지향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강점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점활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최종모형에서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결과, 최종모형의 경로 중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에 미치는 경로에서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추구집단 보다 성장추구집단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고 강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진로상담에서의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강점인식 | 강점활용 | 진로결정수준 | 목표지향성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ngths use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393 college students. To analyze the data,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inally, the mediating model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goal orientation(validation-seeking orientation, growth-seeking orientation) of Dykman by carrying out of multi-group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strengths us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decision level. Second, the mediating model showed variation in different goal orientation type group. In other words, strengths knowledge occurs more severely and distinctively impact on career decision level in growth-seeking group than validation-seeking group.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 keyword : | Strengths Knowledge | Strengths Use | Career Decision Level | Goal Orientation |

## 1. 서론

대학생들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을 지니고 있다. 진로 준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대학생들은 독립적인 성인기로 이행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휴학이나 자퇴, 졸업유예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생의 대학생활 변화’보고서[1]에 따르면, 취업난은 심화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업 이전 단계에서부터 낙담하는 청년층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학상담소의 호소문제에서도 진로문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로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취업 관련 정보 부족보다는 진로결과와 관련된 내적 갈등이나 주변인들과의 갈등을 주로 호소하였다[2].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건강하게 준비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돕는 것은 상담현장에서 주요한 과제이다.

우선 진로결정은 진로상담과 진로지도의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는 핵심적인 관심 주제이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3]에서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에 해당되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에 대해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을 지속하여 진로결정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진로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은 직업결정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며, 진로결정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였더라도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진로결정을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속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라고 정의된다[4].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낮고[5], 진로관련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그래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그 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 변인으로는 성/학년과 같은 인구통계

학적 변인, 정체감 변인, 효능감 변인, 의사결정유형 변인, 부모 관련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메타분석한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7]의 연구에서 보면,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과 높은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발달이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기(self)에 대한 이해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uper의 진로발달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요인을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 따라 자기(self)의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측면인 강점(strengths)에 주목하면서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8-12].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심리학이 질병 모델에 따라 인간을 바라봄으로써 간과하였던 인간의 긍정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상담이란 개인의 결함과 손상된 측면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 제안되었다[13][14]. 그 동안 대학생의 진로상담 분야에서도 진로결정의 장애 요인이나 정서/성격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긍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발달시키는 측면에 대한 상담 개입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긍정적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긍정적 특성으로 강점(strengths)을 제시하였고, 개인의 강점이 건강한 삶의 과정을 지속시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충분한 삶 혹은 자기실현(fulfillment)를 가져온다는 성장 모델을 제안하였다[15]. 즉,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이것을 삶 속에서 활용하고 함양시킴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정신건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14].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진로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은 자기실현을 해나가는 하나의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진로 발달 연구에서도 강점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분명한 진로 목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12], 자신의 강점인식 이후에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의존적인 진로선택이 감소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16]. 이러한 결과들은 강점인식이 진로결정의 중요한 선행변인이라는 것을 제안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는 강점활용을 들 수 있다. 강점활용은 다양한 장면에서 자신의 강점을 적용 또는 발휘하는 것이라 정의된다[17]. Seligman[14]이 강점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생겨 강점을 활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듯이,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이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12][17]. 그런데 두 변인이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이 모두 활력 및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강점활용만이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17].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강점인식 이후에 강점활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강점활용과 진로 변인들과의 관련성도 검증되었는데, 대학생의 강점활용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적응성 및 진로정체감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8-10]. 또한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돕는 코칭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성격, 직업정보부족에 의한 진로미결정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18].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긍정심리학의 성장 모델[15]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강점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분매

개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대안모형은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했을 때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2].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로상담 장면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개입할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다방면에서 활용해 봄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강점활용을 해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진로결정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장기간 동안 개인의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목표(goal)가 있다[4].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도 개인이 진로를 발달시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목표(personal goals)는 주요한 요인이며, 목표설정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제안되었다[19]. 특히 어떤 유형의 목표를 지향했느냐가 상황에 대한 정서 및 행동적 반응에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20]이 검증되었다. 예를 들면, 진로숙달목표(진로장면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증진시키려는 목표)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진로수행회피목표(진로장면에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목표)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2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Dykman[22]의 목표지향성 모델을 근거로 하여, 목표지향성 유형의 차이가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통해 진로결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을 상담할 때 개인의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과 대안모형[그림 2]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라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매개로 진로결정으로 이행되는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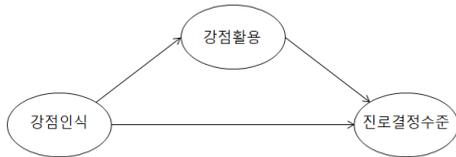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그림 2.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결정수준

Super[3]의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진로를 전생애적(life-span) 측면에서 바라보며, 일과 관련한 경험을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발달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Super의 진로발달단계는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로 나뉘는데,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요한 진로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 시기에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에 대해 구체화하며, 그에 따라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을 지속하여 진로결정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진로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은 직업결정발달의 정상적인 과정이며, 진로결정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였더라도 변경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진로결정을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속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및 직

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라고 정의된다[4].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낮고[5], 진로관련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그래서 대학생들의 진로결과와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 변인으로는 성/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체감 변인, 효능감 변인, 의사결정유형 변인, 부모 관련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메타분석한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7]의 연구에서 보면,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과 높은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발달이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기(self)에 대한 이해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시사한다.

### 2. 강점인식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심리학이 질병 모델에 따라 인간을 바라봄으로써 간과하였던 인간의 긍정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상담이란 개인의 결함과 손상된 측면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 제안되었다[13][14].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긍정적 특성으로 강점(strengths)을 제시하였고, 개인의 강점이 건강한 삶의 과정을 지속시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충만한 삶 혹은 자기실현(fulfillment)를 가져온다는 성장 모델을 제안하였다[15]. 또한 Seligman[14]은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이것을 삶속에서 활용하고 함양시킴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정신건강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Linley[24]는 “강점은 최적의 기능과 발달 및 수행을 이끌어주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혹은 느끼는 특정한 방식으로, 그것은 활용하는 이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하고, 열정을 느끼게 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와 같이 정의된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강점을 우선적으로 자각하고 인지해야 그로 인한 추가적인 이점을 얻게 된다. 강점인식이란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7]. 그런데 Lopez[12]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에 대한 질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인식하지 않은 채로 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인지하는 자신의 강점인식 수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강점인식 관련 연구에서는 그것의 긍정적 효과를 밝혀왔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위인들과 탁월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공통된 요인이었고[25], 강점인식 수준은 안녕감 및 활력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강점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집단 프로그램은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증가시켰고[26-28],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가 내담자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짧은 개입은 상담의 작업 동맹과 내담자의 숙달감을 향상시키는 것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내담자의 증상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29].

### 3.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Super[3]의 진로발달이론과 진로결정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대학생의 자기에 대한 이해는 진로결정에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긍정심리학에서 성장 모델이 제안되면서, 자기의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측면인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성장 모델에서는 개인의 강점이 건강한 삶의 과정을 지속시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충만한 삶 혹은 자기실현(fulfillment)를 가져온다고 제안되었는데, 대학생에게 충만한 삶 혹은 자기실현의 상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결정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강점인식과 진로 관련 연구에서 보면,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와 진로적응성이 향상되었다[8][10]. 또한 강점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분명한 진로 목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12], 자신의 강점인식 이후에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의존적인 진로선택이 감소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강점

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 4. 강점인식, 강점활용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긍정심리학의 성장 모델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알고 이것을 삶 속에서 활용하고 함양시킴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정신건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14]. 이에 따라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는 강점활용을 들 수 있다. 강점활용은 다양한 장면에서 자신의 강점을 적용 또는 발휘하는 것이라 정의된다[17]. Seligman[14]이 강점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생겨 강점을 활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듯이,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이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12][17]. 즉,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수록 그것을 삶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변인이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이 모두 활력 및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강점활용만이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이 확인되었다[17].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의 효과를 검증한 Seligman, Steen, Park 및 Peterson[28]의 연구에서도 강점인식 집단은 즉각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이고, 강점활용 집단은 6개월 후에도 행복감의 증가와 우울감의 감소가 유의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점을 통해 장기적으로 실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강점인식 이후에 강점활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진로 관련 연구에서도 강점활용의 긍정적인 역할이 검증되고 있는데, 소명 수준이 낮더라도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수록 대학생활의 학업적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대학생의 강점활용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적응성 및 진로체제감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8-10]. 또한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돕는 코칭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

단 성격, 직업정보부족에 의한 진로미결정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18]. 따라서 긍정심리학의 성장 모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로상담 장면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개입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 5. 목표지향성 유형

개인의 강점은 인간중심상담[30] 이론의 실현경향성(즉, 유기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형성되고자 하는 경향성)을 대변한다고 제안되었다[23]. 즉,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진로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은 자신의 실현경향성을 바탕으로 자기실현을 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중심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할 때, 동일한 이론적 배경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목표지향성이 Dykman[22]의 목표지향성 모델이다. Dykman[22]의 목표지향성 모델은 인간중심상담과 같은 인본주의 이론[31]과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개인의 목표 추구 성향으로 인정추구지향성(validation-seeking orientation)과 성장추구지향성(growth-seeking orientation)의 2가지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목표지향성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성향이라 제안되었는데, 인정추구지향성은 조건적이고 비판적이며 완벽주의적 양육태도에서 발생하는 성향이고 성장추구지향성은 지지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으며 수용적인 양육태도에서 발생하는 성향이라고 하였다[22][32]. 인정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가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자신의 가치나 능력이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특성을 평가받는 것으로 인식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인정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경험할 때는 소속감과 자존감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지만,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경험할 때는 개인의 가치나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우울에 취약

해지고 다양한 적응문제(예, 사회적 불안, 낮은 자존감, 낮은 희망 등)를 겪게 된다. 반면에 성장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하며, 도전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개인적인 성장, 학습 및 자기-향상의 기회로 인식하여 그와 같은 경험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장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는 자신의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소외, 거절, 실패)일지라도 앞을 더 나은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여겨 실패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울에 저항력을 지닐 수 있다[32].

그런데 인간중심상담 이론에서 인간은 누구나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부모나 타인 혹은 사회의 가치조건에 따라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동시에 받는다고 제안되었다. 다만, 조건적 긍정적 관심 보다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더 많이 제공될 때 인간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취향, 재능, 역량 및 잠재력을 명확하게 발현시켜 나간다고 본다[32]. 그래서 Dykman[22]도 목표지향성의 두 요인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이고 상호보완적인 요소들이므로, 목표지향성을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한 개인 내에서 두 목표지향성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한 개인이 두 목표지향성 중 더 많이 추구하는 목표지향성 유형(두 목표지향성 점수의 차이)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정추구지향성 점수가 성장추구지향성 점수보다 높은 집단을 '인정추구집단'이라 명명하였고 성장추구지향성 점수가 인정추구지향성 수준보다 높은 집단을 '성장추구집단'이라고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실제 연구결과에서 보면, 인정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소진이 높았고 성공적 수행을 방해하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많이 하며,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낮았다. 반면에 성장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소진이 낮았고 자기구실 만들기를 적게 하며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높았다[33-35]. 또한 두 목표지향성은 부정적인 삶의 사건 이후의 반응에서 보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삶의 사건 이

후에 인정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성장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 보다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더 크게 입었고, 과업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우울감도 증가하였다[22][36]. 이처럼 목표지향성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정신건강문제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Dykman[22]의 목표지향성 유형의 차이가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통해 진로결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을 통한 진로결정과정을 상담할 때 개인의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C대학교의 대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달간이었다. 수거된 422부의 설문자료 중 결측치가 있거나 무성의한 응답 자료 2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3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42명(36.1%), 여학생이 251명(63.9%)이고, 연령은 19~28세로 평균 연령은 22.18세였다. 학년은 1학년 99명(25.2%), 2학년 141명(35.9%), 3학년 83명(21.1%), 4학년 70명(17.8%)이었고,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260명(66.2%), 자연공과계열 108명(27.5%), 예술계열 24명(6.1%), 무응답 1명(0.3%)이었다.

#### 2. 측정도구

##### 2.1 강점인식 척도

강점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Govindji와 Linley[17]가 개발한 강점 인식 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김민정과 이희경[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강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 등이 있다.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2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강점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ovindji와 Linley[1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국내에서 김민정과 이희경[8]의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 2.2 강점활용 척도

강점활용을 측정하기 위해 Govindji와 Linley[17]가 개발한 강점 활용 척도(Strengths Use Scale)를 박부금과 이희경[3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Korean version of Strengths Use Scale: K-SU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다양한 장면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를 측정한다. 척도는 총 14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강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ovindji와 Linley[1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고, 국내에서 박부금과 이희경[37]의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 2.3 진로결정수준 척도

Osipow, Camey, 및 Barack[38]가 개발한 진로 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3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을 나타내는 2문항과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 및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를 포함하여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졌다[39].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파악하고자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전체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향자[3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 2.4 목표지향성 척도

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Dykman[22]이 개발한 목표지향성 척도(Goal Orientation Inventory: GOI)를 변자영[4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자영[40]의 연구에서는 'validation-seeking orientation'을 'validation-seeking orientation'이라고 번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validation의 의미를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인정'이라고 판단되어 '인정추구지향성'으로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의 성향을 인정추구지향성과 성장추구지향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인정추구지향성의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주위 사람들만큼 나도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을 나는 나의 기본적 가치, 능력 그리고 호감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느낀다' 등이 있다. 성장추구지향성의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어렵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인간으로서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패나 거부의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이다' 등이 있다. 각 하위 척도는 18문항씩이고 총 36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목표지향성 점수는 Dykman의 계산 방법에 따라 인정추구지향성 18문항 점수들의 합에서 성장추구지향성 18문항 점수들의 합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얻은 집단을 인정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점수를 얻은 집단을 성장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정추구집단이 141명(35.9%), 성장추구집단이 252명(64.1%)으로 나타났다. Dykman[2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인정추구지향성이 .97, 성장추구지향성이 .96으로 나타났고, 변자영[40]의 연구에서는 인정추구지향성이 .90, 성장추구지향성이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정추구지향성이 .92, 성장추구지향성이 .96으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연구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간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2.0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이후에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각 변인들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들과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은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생성하였다. 측정변인이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측정변인의 타당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모형의 식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안[41]에 따라, 각 변인별로 3개의 측정변인을 제작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42]. 상관분석 결과는 측정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표 1. 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1. 강점인식	-											
1-1. 강인1	.94**	-										
1-2. 강인2	.95**	.84**	-									
1-3. 강인3	.91**	.76**	.80**	-								
2. 강점활용	.70**	.68**	.67**	.60**	-							
2-1. 강활1	.67**	.64**	.64**	.57**	.95**	-						
2-2. 강활2	.71**	.67**	.68**	.62**	.96**	.87**	-					
2-3. 강활3	.61**	.60**	.57**	.52**	.93**	.83**	.84**	-				
3. 진로결정수준	.40**	.37**	.36**	.39**	.39**	.35**	.37**	.39**	-			
3-1. 진로1	.40**	.67**	.37**	.39**	.33**	.30**	.31**	.34**	.90**	-		
3-2. 진로2	.32**	.30**	.28**	.33**	.34**	.31**	.33**	.35**	.97**	.73**	-	
3-3. 진로3	.37**	.34**	.34**	.35**	.38**	.34**	.37**	.36**	.92**	.73**	.76**	-
평균	4.81	4.89	4.90	4.57	4.69	4.73	4.61	4.76	3.07	3.06	2.84	3.28
표준편차	1.01	.98	1.07	1.24	.93	.93	.99	1.02	.58	.68	.65	.60
왜도	-.10	-.30	-.08	-.01	-.07	-.13	.02	-.26	-.41	-.40	-.23	-.79
첨도	-.36	-.17	-.38	-.57	.20	.17	.03	.23	-.58	-.80	-.50	.13

\*\*  $p < .01$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TLI, CFI 값은 0.9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0.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0.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43]. [표 2]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보면,  $\chi^2(24)=56.281, p=.000, TLI=.984, CFI=.990, RMSEA=.059(90\% \text{ 신뢰구간: } .039-.079)$ 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유의성, AVE, 및 C.R.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84에서 .94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C.R.도 1.965이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AVE값이 .5이상이고 C.R.값이 .7이상이며,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제곱값이 AVE보다 작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형	56.281 ( $p=.000$ )	24	.984	.990	.059 (.039-.079)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유의성, AVE 및 C.R.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C.R.	$\beta$	AVE	C.R.	상관계수 (제곱)
강점인식 (A)	강인1	1.000			.905			
	강인2	1.118	0.038	29.106	.933	.806	.926	A&B =.752 (.566)
	강인3	1.186	0.049	24.22	.853			B&C =.416 (.173)
강점활용 (B)	강활1	1.000			.926			
	강활2	1.088	0.032	33.552	.944	.846	.943	A&C =.428 (.183)
	강활3	1.052	0.037	28.552	.888			
진로결정수준 (C)	진로1	1.000			.845			
	진로2	0.975	0.048	20.187	.861	.740	.895	
	진로3	0.913	0.045	20.49	.875			

### 3. 가설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강점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고, 대안모형은 강점인식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직접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우선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대안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보면, TLI와 CFI는 .9보다 크고, RMSEA는 .08보다 작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안모형이 연구모형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의  $\chi^2$  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chi^2_{\text{경쟁모형}} - \chi^2_{\text{연구모형}}(1) = 10.169, p < .05$ ), 자유도가 작은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강점인식은 강점활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 $\beta=.75, p<.001$ ), 진로결정수준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26, p<.01$ ). 즉,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강점활용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점활용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22, p<.01$ ). 즉, 강점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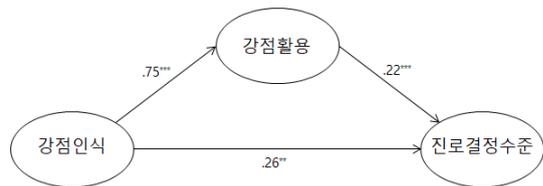
표 4.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56,281 ( $p<.000$ )	24	.984	.990	.059 (.039-.079)
완전매개모형	66,450 ( $p<.000$ )	25	.981	.987	.065 (.046-.084)

### 4.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이 매개하는 모형에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44]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5,000번을 실시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이 방법은 제시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을 거쳐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63, 95\% \text{ Bias-corrected CI}=.019\sim.299$ ). 즉,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강점활용 수준이 높아지면서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주. \*\*\*  $p < .001$ , \*\*  $p < .01$

그림 3.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표 5.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Bootstrap 결과

경로	$\beta$	S.E.	BC 95% CI
강점인식 → 강점활용 → 진로결정수준	.163	.071	.019~.299

### 5.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집단별 구조모형 검증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검증된 최종모형이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른 집단(인정추구집단, 성장추구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목표지향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목표지향성 수준에 따른 인정추구집단( $n=141$ )과 성장추구집단( $n=252$ )으로 나누었다. 이후 다집단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두 집단에서 최적의 모형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고, 두 집단에서 요인부하량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집단의 형태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에

표 6. 목표지향성 유형에 의한 기저모형과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elta \chi^2$	df	$\Delta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기저모형	90,357		48		0,979	0,986	0,048
측정동일성 모형	102,94	12,583	54	6	0,978	0,984	0,048
완전 구조동일성 모형	109,455	6,515	57	3	0,978	0,982	0,049
강점인식 → 강점활용	108,752	5,812*	55	1	0,977	0,982	0,05
강점인식 → 진로결정수준	103,218	.278	55	1	0,979	0,984	0,047
강점활용 → 진로결정수준	103,689	.749	55	1	0,979	0,984	0,048

주. \*  $p < .05$

서 최적의 모형이 동일한지를 알아보았다. 인정추구지향성 집단의 경우,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24, N=141)=46.950, p<.01; TLI=.965, CFI=.977, RMSEA=.083(90\% \text{ 신뢰구간}:.047-.118)$ ,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25, N=141)=49.997, p<.01; TLI=.964, CFI=.975, RMSEA=.085(90\% \text{ 신뢰구간}:.050-.118)$ 으로 나타났다. 성장추구지향성 집단의 경우,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24, N=252)=43.361, p<.01; TLI=.985, CFI=.990, RMSEA=.057(90\% \text{ 신뢰구간}:.028-.083)$ ,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25, N=252)=49.604, p<.01; TLI=.982, CFI=.988, RMSEA=.063(90\% \text{ 신뢰구간}:.036-.088)$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집단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요인부하량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의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면,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chi^2$ 값의 차이가 12.583이며 자유도의 차이가 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TLI, CFI, RMSEA도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즉, 두 집단에서 강점인식, 강점활용, 진로결정수준의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구조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완전 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면, 측정동일성 모형과 완전구조

동일성 모형의  $\chi^2$  차이가 6.515이며 자유도의 차이가 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의 경로에서 목표지향성 유형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경로계수를 동일화 제약을 가해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목표지향성 유형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즉, 성장추구집단에서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추구집단에서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나타났다(성장추구집단=.807 > 인정추구집단=.642).

표 7. 인정추구, 성장추구 집단별 경로계수

경로	인정추구집단			성장추구집단		
	B	$\beta$	C.R.	B	$\beta$	C.R.
강점인식→강점활용	.58	.64	8.13***	.81	.80	15.09***
강점인식→진로결정수준	.12	.20	1.76	.21	.30	2.51*
강점활용→진로결정수준	.18	.29	2.45*	.09	.12	1.05

주. \*\*\*  $p < .001, * p < .05$

## V. 논의

본 연구는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최종 모형에서 목표지향성 유형 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강점활용은 강

점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수록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더욱 활용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감도 향상되어 진로결정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강점인식은 강점활용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적응성 및 진로정체감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된 선행연구들[8-10]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강점이 건강한 삶의 과정을 지속시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충만한 삶 혹은 자기실현을 가져온다는 긍정심리학의 성장모델[14][15]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그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확신있는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꾸준히 활용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진로결정수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강점인식의 직접효과와 강점활용의 매개효과가 검증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의 긍정적 기제(mechanism)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또한 강점인식은 그것을 활용해야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선행연구 결과[17][28]와도 차이점이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진로에 대한 포부와 확신감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목표지향성 유형 집단에 따른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에서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으로 이행되는 경로에서 인정추구집단보다 성장추구집단의 정적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수준으로 강점을 인식하였어도 인정추구집단보다는 성장추구집단에서 자신의 강점을 더욱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정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의

사건 이후에 성장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 보다 자아 존중감의 손상을 더 크게 입고, 과업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우울감도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22][36]와 부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결과이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Dykman[22]의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강점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이 검증되었고 이 경로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목표지향성 유형의 차이가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목표지향성 유형의 차이가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으로 이행되는 경로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장기간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당장의 성과가 없고 어려움이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자신의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인식할수록 저항력을 지니고 지속적인 강점활용을 해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인정추구지향성이 더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였음에도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과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우울에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이나 사회의 가치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증명받고자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강점과는 일치하지 않는 목표추구행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강점과 일치하지 않는 목표추구행동은 결국 대학생들이 주체적이고 확신있는 진로결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적 가치 조건에 따라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받기 위해 행하는 노력은 개인의 자율성과 학습의 기회,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45]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정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지나친 목표추구행동은 소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 유형에 따라 강점인식이 강점활용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정추구집단에서도 강점인식은 강점활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

기 때문에, 강점인식과 인정추구지향성 수준에 따른 정서 반응 혹은 심리적 건강 수준의 차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진로상담 실제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uper의 진로발달이론[3]에서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로서, 진로미결정이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나 정서/성격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들의 강점을 간과하기 쉽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도 특히 강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본격적인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측면이다. 개인의 강점이 인간중심상담 이론의 실현경향성을 대변한다고 제안되었듯이,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되는 것은 자기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담자들은 진로결정의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럽고 좌절된 마음에 상담실에 방문하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주의가 편향되어 있거나, 자신의 강점을 너무 당연시하여 그들의 강점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46].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내담자 경험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그들의 강점을 발견해 나가야겠다. 예를 들면, 내담자의 성공경험 속에서 내담자의 내적/외적 자원을 탐색해 볼 수 있고, 실재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속에서 내담자의 문제해결력과 탄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상담실에 방문하는 행동 이면에서는 내담자의 성장동기를 발견할 수도 있다[47].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에 과묵히 있어도 그 속에서도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둘째, 내담자의 인식된 강점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므로써 결국에는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Biswas-Diener와 Dean[48]은 개인이 자신의 어떤 강점을 발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해 나가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제 활용 경험과 그로 인한 결과를 상세

하게 살펴보며 상담해야한다. 내담자의 강점활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개념을 현실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이로 인해 자기 확신감이 높아져서 진로결정이 용이해 질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도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내적 자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셋째,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가 활용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재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내담자의 목표지향성 유형을 파악하여 인정추구보다는 성장추구를 더 많이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Dykman의 목표지향성 모델[22]에서 부모의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성장추구지향성을 발생시킨다고 제안하였듯이, 상담자는 보다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상담 이론에서도 상담자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태도는 내담자가 자신을 그 자체로 인정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간다고 하였다. 실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덜 진실하고 더 많은 거짓 자기 행동(false-self behavior)을 하고[49], 부모에 대한 분노 수준도 높았다[50]. 따라서 상담자는 보다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내담자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여 자신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한편 인간중심상담[30]에서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긍정적 존중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제안에서도 나타났듯이, 내담자들이 지닌 인정추구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다만, 인정추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실재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가치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우울에 취약해 지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느끼는 우울감을 공감하며 성장추구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또한 내담자가 인정추구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는 일치하지 않는 타인이나 사회적 가치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강점을 발달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내담자가 만족시키고자 하는 타인이나 사회적 가치조건을 탐색하여 내담자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게 해야 할 것이다. 가치조

건은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치조건을 내면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자기실현을 하게 된다[23].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조건을 자율적으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로 탐색과 직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다양한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의 역할을 검증하고 이와 함께 진로결정의 과정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둘째, 강점인식과 강점활용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이 다시금 확인되었으나 실제 상담장면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강점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Dykman의 제안에 따라 목표지향성 유형 집단을 2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나, 진로관련 목표지향성 연구에서는 동시에 2가지 목표 추구를 지향하는 집단이 탐색되기도 하였고 다양한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어떤 목표도 추구하지 않는 무동기 상태의 집단이 탐색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51].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을 돕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1] 양정승,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생의 대학생활 변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Issue Brief, 제125권, 2017.  
 [2] 강선희, 이예원, 허은정, “2016학년도 학생생활상

담소 상담 호소문제 분석,”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상담, 제35권, pp.107-125, 2017.  
 [3]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Other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1990.  
 [4] 김봉환 등, *진로상담이론: 한국내담자에 대한 적용*, 학지사, 2010.  
 [5] 임은미, 박승민, 엄영숙,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 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0호, pp.33-50, 2009.  
 [6] 라영란, 김경은, “대학생 진로타협과 진로스트레스와의 관계: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7권, 제4호, pp.185-203, 2016.  
 [7]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pp.551-564, 2008.  
 [8] 김민정, 이희경,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5권, 제5호, pp.1811-1830, 2014.  
 [9] 이지원, 이기학,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8권, 제1호, pp.205-228, 2017.  
 [10]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호, pp.1-27, 2016.  
 [11] B. A. Allan and R. D. Duffy, “Examining moderators of signature strengths use and well-being: Calling and signature strengths level,”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5, pp.323-337, 2014.  
 [12] S. J. Lopez, *인간의 강점 발견하기(Discovering Human Strengths)*, (권석만, 정지현 역), 서울:

- 학지사(원전은 2008년에 출판), 2011.
- [13] 이희경, 이동귀, “긍정심리학적 인간이해와 변화,” *인간연구*, 제13권, pp.16-42, 2008.
- [14] M. E. P. Seligman, *완전한 행복(Authentic happiness)*, (곽명단 역), 경기도: 도서출판 물푸레(원전은 2002년에 출판), 2004.
- [15] S. J. Lopez and C. R. Snyder, *긍정심리평가: 모델과 측정(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 (이희경, 이영호, 조성호, 남종호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3년에 출판), 2008.
- [16] 임인선, *초등학생의 성격강점 지각이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7] R. Govindji and P. A. Linley, “Strengths use, self 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Vol.2, pp.143-153, 2007.
- [18] 조지연, 탁진국, “긍정심리기반 강점 코칭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호, pp.279-304, 2016.
- [19] R.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pp.79-122, 1994.
- [20] C. S. Dweck, and E. L. Leggett,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Vol.95, pp.256-273, 1988.
- [21] 김경옥,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2호, pp.501-519, 2009.
- [22] B. M. Dykman, “Integrating 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in depression: Initial tests of a goal-orient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No.1, pp.139-158, 1998.
- [23] S. Joseph and P. A. Linley, *긍정심리치료 {Positive Therapy: A Meta-Theory for Positive Psychological Practice}*, (이훈진, 김환, 박세란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6년에 출판), 2009.
- [24] P. A. Linley, *Average to A+: Realising strengths in yourself and others*, Coventry: CAPP Press, 2008.
- [25] H. Gardner, *비범성의 발견(Extraordinary Minds)*. (문용린 역), 서울: 해냄(원전은 1997년에 출판), 1999.
- [26] 김지영, *성격강점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7] 임영진, *성격 강점과 긍정 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28] M. E. P. Seligman, T. A. Steen, N. S. Park, and C. Peterson,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60, No.5, pp.410-421, 2005.
- [29] C. Flückiger and M. Grosse Holtforth, “Focusing the therapist’s attention on the patient’s strengths: A preliminary study to foster a mechanism of change in outpatient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4, No.7, pp.876-890, 2008.
- [30] C. R. Rogers,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 진정한 사람되기(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Psychotherapy)*,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61년에 출판), 2009.
- [31]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3rd ed.)*, New York: Harper & Row, 1987.
- [32] J. Reeve, *동기와 정서의 이해 제5판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5th}*, (정봉교, 윤병수, 김아영, 도승이, 장형심 역), 서

- 울: 박학사(원전은 2009년에 출판), 2011.
- [33] A. P. Hill, H. K. Hall, P. R. Appleton, and J. J. Murray,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canoe polo and kayak slalom athlet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validation and growth-seeking," *The Sport Psychologist*, Vol.24, pp.16-34, 2010.
- [34] 김지경, "자기구실 만들기: 지능에 대한 신념 및 목표성향, 노력/결과중심의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2권, 제1호, pp.99-114, 2008.
- [35] 이형화, 장형심,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목표추구지향성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융합연구*, 제13권, 제2호, pp.25-49, 2015.
- [36] J. E. Lindsay and W. D. Scott, "Dysphoria and self-esteem following an achievement event: Predictive validity of goal orientation and personality style theories of vulnerabil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29, No.6, pp.769-785, 2006.
- [37] 박부금, 이희경, "강점 활용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1, No.3, pp.599-616, 2012.
- [38] S. H. Osipow, G. C. Carney, and A. Barack,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9, pp.233-243, 1976.
- [39]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40] 변자영, *확인추구지향성, 성장추구지향성 및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41] 우종필,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2012.
- [42] S. G. West, J. F. Finch, and P.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pp.56-75, Newbury Park, CA: Sage, 1995.
- [43] 홍세희,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 [44] P.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pp.422-445, 2002.
- [45] J. Crocker and L. E. Park,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Vol.130, pp.392-414, 2004.
- [46] R. Biswas-Diener, T. B. Kashdan, and G. Minhas, "A dynamic approach to psychological strength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6, pp.106-118, 2011.
- [47] 권혜경, 이희경,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5, No.3, pp.397-424, 2013.
- [48] R. Biswas-Diener and B. Dean, *Positive psychology coaching: Putting the science of happiness to work for your clients*,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7.
- [49] S. Harter, D. B. Marold, N. R. Whitesell, and G. Cobbs, "A model of the effects of parent and peer support on adolescent false self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67, pp.360-374, 1996.
- [50] A. Assor, G. Roth, and E. L. Deci, "The emotional costs of parents' conditional regard: A self-determination theor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Vol.72, pp.47-88, 2004.
- [51] 이예진, 이기학,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pp.267-287, 2010.

저 자 소 개

김민정(Min-Ju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부:교육심리학)(학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석사)
  - 201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박사수료)
  - 2012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상담원
- <관심분야> : 상담심리, 긍정심리, 진로상담

이희경(Hee-Kyung Lee)

정회원



- 1988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학사)
  - 1990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석사)
  - 1999년 8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긍정심리